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지난 주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 오후 2시 30분부터 '종교개혁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 : 안영술 목사 (산동교회)
- 푸르기학교 가을여행이 28일(화)~30일(목)까지 경기도 가평 어린이학교 도보여행이 28일(화)~30일(목)까지 강원도 고성과 양양 멧쟁이학교 테마여행이 27일(월)~30일(목)까지 수원과 대전
- 연합선교비지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선교위원회의 주관으로 이웃공동체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탐방 날짜: 11월 8일(토). 신청: 이어진 전도사
- 31일(금) 영락교회 권사회에서 사랑방으로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올 초부터 함께 생활했던 패트릭(이주안) 선생님이 11월 초에 독일로 귀국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종훈 · 장미라 집사 가정 (감사)

석용범 · 박영선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영선 집사 (생일 감사)

신희(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43호

2025년 10월 2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수인이 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개혁의 시작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큰 태풍으로 인해 바람이 많이 불었던 때를 기억한다. 태풍으로 인해 학교를 빨리 마치고 귀가한 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일찍 끝나서 좋기도 하지만 바람이 요란하고 강하게 불어서 겁이 나기도 했다. 비록 5-10분 거리지만 어머니가 마중나왔다. 다리에서 어머니를 보고 다가가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갔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똑바로 걷고 싶으려고 했지만 작은 몸과 힘으로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었다.

모든 것을 과학과 연관지어 말하는 과학 유튜브 '괘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재미로 귀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만들어 낸 농담이 있다. 언뜻 과학의 괘도는 침착맨의 방송에 출연하여 지박령(땅에 묶여 있는 영혼)이 실존한다면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지구는 평균 29.76km/s 속도로 공전을 한다. 게다가 1,300km/h 속도로 자전도 합니다. 지박령이 되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고 빠르게 변하는 그 위치를 귀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지박령 행세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박령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에 맞춰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한 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박령을 만나면 놀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평좌표계로 고정을 하셨죠? 하고 물어 보라는 이야기다.

흐름은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반대로 가는 힘이 필요하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겨우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미묘하게 앞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일 때가 있다.

현재시대를 급변하는 시대라고 한다. 과학기술과 정보들은 힘 세 없이 넘쳐나고 있으며, 새로운 것이라고 해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미디어 매체에 나오는 가수들의 신곡 활동 기간도 최근에는 평균 2-4주로 많이 짧아졌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회에 빠른 적응보다는 본질을 생각하고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사회의 흐름에 뒤처져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뒤처지거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 될 수도 있다. 흔히 트렌드(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를 따라 신선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신앙 생활을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 젖게 되고 새롭게 나의 관심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세상의 변화에 발 맞추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과 재미를 넘어서는 신앙생활은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죄인 인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주위를 변화시키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곳에서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빠른 세상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본다면 부단히 개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본래 의미를 찾다. 지키며 유지하는 것도 큰 일이라 하겠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그 기쁨의 삶이 계속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다시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된다.

운동 선수들이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합을 잘 치르려 한다. 종교개혁 주일을 생각하면서 큰 틀의 변화와 방법을 바랄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휩쓸려서 놓쳐버린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하면 좋겠다.

한주간의 말씀

그래서 그가
 “ 주님, 누구십니까? ”
 하고 물으니,
 “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
 <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19, 347 / 370

기도 :

성경 : 여호수아 24장

제목 : 세겜에서 언약을 재확인하다

1. 내용: 세겜에서 신앙 서약식을 하다 (What)

<문단구분>

1~13절 세겜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14~28절 이스라엘의 신앙 서약식

29~33절 여호수아의 마지막 기사

2. 의미: 삶의 전환기에 언약을 재확인하다 (Why)

1) 세겜이라는 역사적 장소에서 모였다.

2)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언약을 재확인하다.

3. 적용: 삶의 전환기에 첫 신앙의 자리를 기억하자 (How)

1) 삶의 패턴이 바뀔 때, 신앙의 자세를 최우선으로 삼자.

2)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노력하자.

성서일기

사랑하는 진영아

드디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구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는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게 된 너의 모습을 보니

기쁘고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몽글하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기다림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준 너에게 감사하고, 이제 너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축복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때나 돌아올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이다..”(시편 121:7-8)

이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야.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과 성실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세상은 때로 빠르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네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실거라 믿는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부모의 품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품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기도와 사랑으로 너를 품고 계신 그분의 손길을 믿기 바란다.

우리는 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의 출근길에도, 내가 잠드는 밤에도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구한다.

너의 손으로 세워갈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한다.

사랑한다. 우리 든든한 딸 진영아

네 걸음 하나하나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어디에 있든, 주님이 너와 함께하시길 바라며 ...

주 안에서,

아빠 엄마가

지체들의 삶

비움사랑방 최창수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마태복음 16 : 24-25

1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복회기도

이사야서 43 : 25

585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전도

- 성경난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종교개혁, 주인을 바꾸십시오"

사도행전 9 : 1-19

325

따뜻한사랑방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31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항민 최신혜 / 봉헌위원 : 정송희 / 꽃꽂이 : 김영화
 좋은 이를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사랑방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 인격과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종교개혁, 주인을 바꾸십시오

사울의 변화. 사울은 여전히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다마스쿠스의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1-2>
 그러나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4> "주님, 누구십니까?"<5> "나는 내가 핍
 박하는 예수다."<5>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변화의 핵심, 주인의 전환. "주님"<5>은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신앙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후 사울은 예수님
 의 지시를 따라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6-17> 변화 전의 사울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행하였고, 변화한 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랐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주인의 전환입니다.

종교개혁, 주인을 바꾸십시오. 나의 인격과 내 삶의 주인
 은 누구입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
 많아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율효중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푸르기학교

봄과 가을. 일 년에 두 번은 꼭 방문하는 광릉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은행잎 단풍잎이 아직 물들지 않아 좀 아쉽기는 했지만 낙엽더미를 모아 던지기 놀이를 하고 넓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얼음뿔놀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이 길 저 길을 산책하며 만났던 아기뽕, 여치, 메뚜기, 호랑나비가 참 반가웠어요. 푸르기들에게 수목원은 언제나 근사한 숲 놀이터입니다.

목요일 미술시간에는 골판지 상자를 오려 만든 여러 모양의 나뭇잎에 털실과 돗바늘로 박을질을 해서 꾸며 보았습니다. 완성하는데 한 시간 남짓 걸려서 막바지에는 도망가고 싶은 푸르기도 있었지만 꼭 참고 모두 끝까지 완성해서 자연예배당 벽면을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어제 선교바자회에 푸르기들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마음에는 지난날. 인형, 옷을 구입해서 매우 신나 보였고 선생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서 대접해준 교마운 푸르기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어요. 덕분에 행복했어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지난 한 주 간 기온이 좀 내려가기는 했지만 하늘은 높고 푸르고 공기는 상쾌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더욱더 밖에서 열심히 뛰어 놀았어요. 트램펄린도 타고 모래놀이도 하고 운동장을 휘젓고 다니기도 하구요. 선생님들은 숙제나 준비물을 빼뜨린 친구들에게 꼭 운동장 뛰는 벌을 내리셨는데, 왜냐하면 도보여행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서 체력을 키워야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린이 친구들이 뛰어 노는 것을 보면 몇 십 킬로미터는 거뜬히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금요일 오전에는 5, 6학년은 세 번에 걸쳐 특강 수업이 있었고, 1, 4학년은 도서관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도서관은 가농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가재울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의 크기는 아담한 편이었지만 규모가 알차고 또 예뻐요. 책을 읽다보면 지하철 운행 소리가 들리는 독특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토요일! 쇼핑하는 재미, 맛있는 것을 사먹는 재미, 마니또에게 선물하는 재미, 그리고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재미 등등을 실컷 누리는 바자회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저런 재미를 느끼며 보낸 어린이 친구들은 27일 일요일 하루는 쉬면서 도보여행 준비를 하고 28일 화요일 아침이 되면 강원도 고성으로 도보여행을 위해 출발합니다. 어린이들, 교사들, 도우미로 섬기는 부모님들 모두 2박 3일 간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이번 주는 기독교교육주간으로,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5시 30분까지 기도의 장에 걸어가는 것은 딱 힘들었지만, 멋쟁이들은 추운 새벽공기와 졸음과 싸워가며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잠을 덜어낸 만큼 오후 시간에는 휴식 시간을 따로 갖기도 했습니다. '촉구를 할 수 없음'이라는 조건을 걸고서 말이지요. 힘들었지만 모두가 함께 기도한 만큼, 각자의 기도제목들에 하나님의 응답을 잘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뭐니해도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토요일에 있는 바자회였습니다. 소중한 주말까지 학교에서 멋쟁이들은 기증품을 구분하고, 마당에 물품을 배치하고, 천막 등을 설치하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이것저것 갖고 와서 팔 준비를 하고, 더욱 멋진 퍼포먼스를 위해 춤을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모습들은 참 멋져 보였습니다. 대망의 비 없는 토요일에 멋쟁이들은 각자가 맡은 영역에 최선을 다하며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무척이나 성공적인 바자회로 보냈습니다. 이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바로 테마여행을 떠납니다. 설 들이 적지만 그래도 할 게라면 뭐든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안전과 좋은 경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요.
< 교사 : 이어진 >

익어가는 나의 삶

비도 많이 오고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을 뒤로하고 햇살 가득한 가을을 만끽하며, 들녘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따뜻해져움을 느낀다. 자연 들녘에는 햇살 가득 풍은 과일들이 익어가는 과일의 아름다움을 맘껏 뽐내고 있는 듯하다. 과일이나 곡식이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익어가듯, 나의 삶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어 가길 바란다. 햇살에 물들고, 바람에 단단해진 곡식처럼 나의 삶도 천천히 익어가길 바란다.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조금씩 깊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아직은 덜 익은 나의 믿음, 나의 삶이지만, 천천히 익어가는 과일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의 길 또한 천천히 익어가길 바란다. 때로는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따뜻하게 비추고, 또 어떤 날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험 속에서 서 있기도 한다. 그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의 삶을 익여가게 하신다. 익어감에는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시련과 기다림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 아직은 덜 익은 내 믿음, 때로는 미숙하고 자주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 머문다면 언젠가 향기로운 열매로 아름답게 맺히겠지?

오늘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제 삶이 늙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 가게 하소서. 주님의 향기를 더 짙게 하소서. 늙는다는 것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익어가는 과정임을 깨닫는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하며, 늙어가고, 익어 가는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윤호중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300장, 516장

성 경 : 하박국 2장 1-4절

말 씀 : 믿음으로 사는 의인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국의 기독교인을 위해>

지난 10월 9-11일 중국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류 혐의 적용하여 베이징, 선전, 상하이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 30여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전격 체포했다. 로이더 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공동체학교를 위해>

전국 8개 공동체 현장 방문(건축, 강의, 대화)하는 일정을 갖는다. 이를 통해 공동체에 참여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기독교 교육주간 새벽기도회를 위해
- 2)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선교 바자회를 위해
- 3) 종교개혁주일예배와 특강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고구마 줄기도 정리하고 미처 캐지 못한 고구마도 다 수확하여 씻어 저장해두었습니다. 껍도 털어 넣어 놓았습니다.

이제 가을 농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한 주간 동안 연합선교바자회 준비로 분주했지만,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누리는 뜻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